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

세종정책브리프

Sejong Policy Brief

No. 2020-18
(2020.11.30.)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New Cold War)은 시작됐나: 신냉전의 실체

김기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kskim@sejong.org

차 례

핵심요약

Ⅰ. 미중 분규의 확대 과정
Ⅱ. 냉전의 기원과 특징
Ⅲ. 이념 관련 미중의 상호 인식
Ⅳ. 미중 신냉전과 그 특징
Ⅴ. 결어

본 정책브리프는 필자가 지난 세종연구소 정세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핵심 요약]

1 무역 불균형 문제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 이념 문제로 비화

- 처음에는 중국의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갈등의 원인이었으므로 미중 갈등이 경제분쟁으로 비쳐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국관계에 내재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갈등이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 경제 영역을 넘어 중국의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이 부각되면서 미국의 정치 및 경제적 맞대응이 현실화 됐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모든 문제의 근저에 중국의 정체성, 즉 공산주의 중국과 그것의 작동 메커니즘인 공산당이 존재한다고 미국이 인식하면서 양국 간 이념분쟁이 발생하게 됨

2 냉전은 과거 미국과 소련 간의 이념 분쟁 시에 이미 사용됐는데, 신냉전은 다음과 같이 과거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음

- 구 냉전이 정치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로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블록과 그 블록을 이끄는 패권국 간의 경쟁과 다툼이었던 데 반해, 신냉전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 그리고 세계경제에 깊이 연계돼 있는 중국경제 등을 특징으로 함

- 특이한 것은 중국과 미국의 불균형 상호의존(Uneven Interdependence)이 미국에게 강력한 대중 지렛대를 제공하면서 미국의 일방적 경제 공세가 가능했고, 공세는 대중 경제봉쇄의 성격을 띠며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 아울러 외교·군사적으로도 중국을 포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분명해지는바, 이는 냉전 시 소련을 봉쇄했던 미국의 전략과 매우 흡사

3 중국이 미국의 공세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 한국의 적절한 대응 요망

1. 미국과 중국 간 분규의 확대 과정

가. 무역 불균형 분쟁(Trade Imbalance)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애초 양국 간의 경제 문제 때문에 불거짐

○ 2017년 기준 약 3,75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에 대해 2018년 3월 미국이 2000억 달러 감축을 요구하며 양국의 분규 시작

○ 같은 해 7월 중국산 수입품 340억 달러에 대해 미국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경제분쟁이 처음 현실화됐고, 중국도 같은 수준으로 맞대응

○ 같은 해 9월 미국, 중국의 대미 수출 2000억 달러 물량(5,745개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확정; 이어 2019년 1월 관세율을 25%까지 올릴 것이라는 미국정부의 발표가 있자, 12월 중국의 요청으로 양국이 90일 휴전에 합의했고, 2019년 1월부터 양국 무역협상 시작

○ 2020년 1월 우여곡절 끝에 양국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

- 중국, 향후 2년에 걸쳐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 추가 구매 약속

- 미국,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보류

- 2월 14일부터 기존 1,100억 달러에 부과했던 미국 추가 관세 15%를 7.5%로 인하

○ 그밖에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 지적소유권 보호 조치 강화 등이 언급되어 있는바, 양국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끌려갔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 관련 분쟁(Unfair Trade Practices)

○ 미국이 무역불균형 문제를 넘어 다음의 추가 사항을 요구하며 미중 경제분쟁, 가시적으로 확대

- <중국 제조 2025>에 명시된 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기업 보조금 지급 및 일체

지원 중단 요구

- 중국 회사 혹은 공산당 조직의 미국회사에 대한 지적재산권 위반 및 상업기밀 절취 중단, 그리고 기술의 강제 이전 정책 폐지

- 중국의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 대중 미국 투자자와 중국 내 경제 주체의 동등한 권리 인정, 그리고 외국인 투자 및 지분 비율 제한 철회

- 금융을 포함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 확대

○ 미국은 사실상 중국경제의 기본 속성을 변화시키라고 요구하는 셈

- 중국경제에서 시장의 작동 범위는 1982년에 천윈(陳雲)의 조롱경제론(鳥籠經濟論)으로 정리된 바 있는데, 계획경제 주(主), 시장조절 보(補), 즉 주보론(主補論)으로 알려짐; 한마디로 시장이 계획을 앞설 수는 없다는 내용

- 조롱경제론의 근간은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 1994년 확립된 조대방소(抓大放小) 원칙을 통해 조롱경제론의 실체가 드러남

- 대기업은 민간이 배제된 국유 원칙 하에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중소 국유기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개인 소유를 인정한다는 원칙

- 대형 기업에 대한 국유 원칙이 강화되면서 경제의 중추인 대기업의 경우 공산당 지배를 벗어날 수 없게 됨

- 대표적으로 석유, 전력, 철도, 우정, 항공, 통신, 천연가스 등 7대 기간산업은 모두 국유기업이 독점

- 바로 이를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부르는데, 앞서 소개한 미국의 중국경제에 대한 질적 변화 요구는 결국 사회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질서를 자유주의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라는 압력인 셈

○ 결국 중국이 수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임을 알 수 있음

- 경제적 차원에서도 미중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다. 미중의 패권경쟁(Hegemonic Rivalry)

○ 2017년 12월 공개된 백악관의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s States of America)'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을 다음과 같이 명시

-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잠식하면서 미국의 힘, 영향력, 그리고 이해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하고, 자신들의 국가 중심 경제모델을 확대시키면서, 이 지역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다시 구축하려 하고 있다"

- "남중국에서 군사기지를 만드는 중국의 시도는 자유로운 물류의 흐름을 저해하고, 다른 국가들의 주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지역 안정을 해친다. 중국은 또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그리고 중국이 자유롭게 이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군사력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 2020년 5월 발간된 미행정부의 대의회 보고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중국의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고 있음

- "미국은 (미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두 체제 사이의 장기 전략적 경쟁을 잘 인식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잘 명시된 바와 같이 정부의 총체적 접근과 냉혹한 현실주의로 돌아가 미국정부는 미국의 이해를 보호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 처음 무역문제로 불거진 미중 갈등이 시간이 지나며 경제체제 자체에 대한 분규, 나아가 전략경쟁, 즉 패권 수준의 갈등으로 확대된 셈

○ 문제는 양국 갈등이 이에 그치지 않고 분규의 가장 심각한 수준인 이념갈등으로 발전했다는 사실

○ 따라서 이념분쟁을 의미하는 '냉전'이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과거 첫 냉전이었던 미국과 소련 간의 분쟁에 이어 두 번째 냉전을 의미하는 '신냉전'으로 미중 이념갈등이 묘사되고 있음

2. 냉전의 기원과 특징

가. 전후 미국의 소련에 대한 재인식

○ 1947년 3월 트루먼 대통령은 미의회 연설에서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경제 원조를 요청하며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 이후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는 데 미국 대외정책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미국과 소련 대립 가시화

○ 대소련 봉쇄정책의 입안자였던 미국 외교전략가 케넌(George Kennan)의 진단은 다음과 같았음: "소련 힘의 정치적 성격은 이데오로기와 환경의 산물인 바, 소련의 현 지도자들이 그들의 정치적 뿌리(origin)를 내리고 있던 운동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데오르기와 거의 30년간 그들이 행사해 온 권력 환경을 의미한다" 1)

- 케넌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소련 외교정책은 공산주의라는 소련 체제의 특징으로부터 연유되는바, 이는 구러시아로부터 전해진 외부세계에 대한 공포 그리고 공산주의 독트린이 전해준 세계 공산화의 의무가 합해진 것; 독특한 공산주의 이데오르기라는 새로운 변수가 기존의 理解에 덧붙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2)

○ 미국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또 다른 강국이 전후 등장했다는 사실, 이 국가와 미국이 협력 공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 따라서 미국은 대소 봉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 등이 강조되면서 이른바 미국과 소련의 '이념분쟁(ideological conflicts)' 이 시작됨

-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냉전' 이라고 표현하는데, '열전' 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양국 모두 핵무기 때문에 상대방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

- 아무튼 중요한 것은 냉전에는 이념분쟁이 핵심 요소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

1) Geroge F. Kennan,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George F. Kennan, *American Diplomacy: 1900-195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원제는 다음과 같다: X,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25/4, July, 1947, pp. 566-82.

2) 김기수, <동아시아 역학구도>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5), p. 80.

나. 냉전의 조건과 특징

○ 냉전의 조건과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ideology)은 미국의 정체성과 시민 인식을 지배하는 가치체계로서 마치 종교적 신념과 비슷하게 양도 불가의 절대성이라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그런 가치를 훼손하는 타협은 사실상 불가능

- 이점은 공산주의의 지도국 소련과 같은 국가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나는바, 소련 역시 미국의 가치와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전세계의 공산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비추어 미국과 비교, 큰 차이는 없음

○ 결국 양국 모두는 세계적 팽창이 궁극의 목표였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의 대소 전략이 '봉쇄정책'

- "미국은 소련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노르웨이의 노스 곶에서부터 터키까지, 그리고 알류샨 열도에 이르는 거대한 동맹국들의 벨트를 형성했고 1970년 이후에는 이 벨트에 중국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소련의 모든 항구 지역은 지리적 환경과 미 해군에 의해 봉쇄됨"

- "냉전 시대 내내 소련보다는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언제나 훨씬 더 이익; 소련은 동맹국에게 무기와 정치적 지원, 기술, 그밖에 여러 가지를 제공했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국제적인 무역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 수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

-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둘러싸인 소련은 바다를 포기하고 대신 군대를 양성하거나 미사일을 만드는 데 예산을 쏟아 부음으로써 그들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했고, 그 탓에 경제적 이득으로 동맹국을 유혹할 수 없었음; 결국 소비에트연방은 갈수록 뒤쳐졌고 마침내 붕괴" 3)

○ 결국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전 세계를 두 개의 블록으로 분할했고, 따라서 둘 중 하나의 블럭과 블럭 종주국의 이념이 힘을 잃고 소멸될 때까지 대립은 지속

- 미국의 대륙 봉쇄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외형상 굳건한 공산주의 동맹체제를 세계적으로 구축했고, 경제는 그렇지 않았지만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거의 대등한

3) 이상 세 개의 인용문 모두 출처는 다음과 같다: 조지 프리드먼, <100년 후: 22세기를 지배할 태양의 제국 시대가 온다> (파주: 김영사, 2010), pp. 42-46.

수준에서 경쟁

- 소련의 소멸은 경제력의 열세와 과도한 군비지출이 원인이었음

○ 이와 같은 구냉전의 조건과 상황을 미국과 중국의 현 대립 구도에 대입하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가 본 논의의 핵심 내용

3. 미국과 중국의 이념 관련 상호 인식

가. 미중 이념 분쟁을 보여주는 미국 측 언급

○ 애초 무역분쟁, 그리고 경제체제에 대한 이견에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급기야 양국 간 패권 다툼으로 발전했고,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 공산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그것의 해악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치면서 양국의 갈등은 이념분쟁으로 심화됨

○ 앞서 소개한 2017년 12월의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SS)' 도 이념 분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

-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은 그 성격과 정도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과 개인을 억압하고 전체적인 일체성을 강요하는 사람들 간의 경쟁이다. 우리 자신, 우리의 동맹국들, 그리고 우리의 파트너들 사이에 간극을 벌리기 위해 이 두 국가는 반 서구적 시각을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

○ 2018년 10월 워싱턴 소재 허드슨 연구소(The Hudson Institute)에서 행한 펜스(Mike Pence) 부통령의 연설[제목: 행정부의 대중 정책(Vice President Mike Pence's Remarks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China)]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냉전의 선포로 간주되고 있음

- "소련 붕괴 이후 중국의 자유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간주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시장을 개방했고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지원했다. 그러나 현재 그런 희망은 실현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 최근 중국은 자신의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2020년까지 인간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는 조지 오웰식 체제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 2020년에 들어와서는 행정부 보고서나 고위층의 발언에 이념분쟁이라는 용어가 더욱 명확하게 등장

❍ 대표적으로 앞서 소개한 2020년 5월 미행정부의 대의회 보고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은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고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의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중국공산당(CCP: Chinese Communist Party)은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에 대한 미국의 절대 신념, 즉 양도 불가의 인간 권리라는 철석같은 믿음에 도전하고 있다.... 베이징은 자신이 서구와 이념 경쟁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2013년 공산당 서기장 시진핑은 중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체제 간의 경쟁에 대비할 것을 중국 공산당에 요구했고, '자본주의는 망할 것이고 반면 공산주의의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 여기서부터 미국정부는 중국의 특징을 중국공산당과 공산주의 체제임을 분명히 함은 물론, 미국과는 전혀 다른 그런 중국의 성향이 미국의 가치와 이해를 침해하고 있다고 선언, 미국과 중국이 이념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음

- 2020년 이전 보고서 혹은 고위 공직자 연설과 비교, 공산주의 및 공산당의 특징을 분명하게 명시

❍ 2020년 6월 오브라이언(Robert C. O' Brien) 대통령 안보 담당 보좌관의 연설은 중국과 공산주의의 연계를 더욱 명확히 하며 이념분쟁의 불가피성을 피력[제목: 중국공산당의 이념과 세계적 야심(The Chinese Communist Party' s Ideology and Global Ambitions)]

- "중국 공산당(CCP: Chinese Communist Party)은 분명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다. 공산당 서기장 시진핑은 스스로를 소련 요세프 스탈린의 후계자로 여긴다.... 물론 그렇다. 잔인한 독재와 끔찍한 정책으로 약 2천만을 죽이고, 기근, 집단 농장, 일방적 처단, 그리고 강제 노동 수용소 등을 통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인 바로 그 스탈린. 레닌, 스탈린, 그리고 마오가 보여주고 실행했듯이 공산주의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이념)이다"

- 중국 공산당의 뿌리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가장 끔찍했던 소련 공산주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미중 타협의 어려움을 피력

❍ 2020년 7월 폼페이오 국무장관 연설은 사실상 미중 분쟁의 전환점으로 간주되는데, 양국 간 이념의 차이가 극복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보여줬기 때문[제목: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

- “중국공산당(CCP)이 마르크스-레닌 체제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시진핑 공산당 서기장은 이미 파산한 전체주의 이념의 신봉자다. 중국 공산주의의 수 십 년 세계 패권을 염원하는 바로 그런 이념. 중국이 미국과 중국의 차이를 수십 년 동안 잊은 적이 없듯이 미국 역시 두 국가 사이의 정치 및 이념상의 차이를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 결국 양국 간의 이념 갈등이 폭발 수준으로 발전했고, 미국은 갈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몰고 갈 것 임을 확실히 하고 있음

나. 중국의 대응

❍ 2020년 9월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항일 승전 75주년 좌담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미국의 이념 공세에 적극 대응

- “그 누구든, 그 어떤 세력이든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왜곡하고 비하하려 한다면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왜곡하고 중국 인민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부정하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 어떤 세력이든 패권으로 저들의 의지를 중국에 강요하고 중국의 앞길을 바꾸려 한다면 중국 인민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 중국 인민의 발전 권리를 파괴하고 중국과 다른 나라 인민의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며 인류 평화와 발전을 훼손하려 한다면 중국 인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미국의 이념 공세를 직시하고 있는 셈인데, 중국이 견지하고 있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즉 중국식 공산주의에 도전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할 수 없다고 언명한 점에 비추어, 미국의 이념 공세가 중국 공산당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0년 10월 23일 중국의 한국전 참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다음의 연설을 행함(2000년 장쩌민 이후 20년 만의 첫 중국 주석 연설)

- “한국전쟁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다. 중국의 한국전 참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향한 중대한 이정표였다.... 제국주의 침략 확대를 억제하고 중국의 안전을 수호한 것이었다.... 특히 침략자를 때려눕혀 신중국(新中國)의 대국 지위를 세계에 보여줬다.... 우리는 국가 주권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정면으로 통렬한 반격에 나설 것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봉쇄, 극단적 압박, 패권 행동은 통하지 않는다”

- 결국 미국 행동을 정조준하고 있는 셈인데, 중국 또한 미국의 이념 공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고, 공세가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의 다음과 같은 분석은 현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0년 동안 무역, 군사, 그리고 이념의 세 차원에서 중국에 대해 동시에 공세를 취한 첫 미국 지도자다” 4)

4) Mark Leonard(The Director of European Councilon Foreign Relations), *Financial Times,* 25 July 2018.

4. 미중 신냉전의 특징

가. 상호의존과 이념분쟁

○ 과거 미소 냉전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진영과 공산주의 계획경제 진영이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

- 미국 중심의 시장경제 진영은 이른바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를 중심으로 자유 무역, 금융 그리고 투자를 영위하며 발전을 도모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그리고 세계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 실무를 위한 국제경제기구로 설립됐고 이들의 기본 골격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음

○ 반면 소련은 경제상호원조위원회(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를 결성 브레튼우즈 체제와는 완전 별개의 공산주의 경제협력체를 구축했음

○ 이와는 반대로 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깊은 상호의존에 기초하고 있고,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의 핵심 요소로 뿌리내리고 있음

- 2017년 기준 중국의 총 무역액은 4조 1000억 달러로 세계 교역의 무려 13%를 점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3조 8880억 달러로 중국과 비슷한 규모; 양국이 세계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연계돼 있는지를 알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대중 총수입은 5050억 달러, 대중 총수출 1300억 달러, 그리고 대중 무역적자는 3750억 달러를 기록, 중국경제와 대단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

- 중국의 대미 총수출은 5050억 달러, 총수입 1300억 달러, 대미 무역흑자는 3750억 달러(중국 총 무역흑자 4225억 달러의 89%를 차지)

○ 결국 과거 미소 관계와는 달리 미국과 중국경제는 대단히 밀접하게 상호의존되어 있고, 특히 중국의 경우는 분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세계경제와 깊이 연계돼 있음

- 미중 간의 갈등이 이념분쟁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미국은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중 압박을 높여가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대중 상호의존의 약화를 노리고 있음

- 앞서 소개한 펜스 부통령의 다음 언급은 이를 두고 한 말: “소련 붕괴 이후 중국의 자유화는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간주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시장을 개방했고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지원했다....”

- 즉 미국이 제공한 중국경제의 상호의존 심화가 중국 경제 번영의 기초였으므로 이를 거두어들이겠다는 의도를 피력하고 있는바, 미국과 중국경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의미

○ 2018년 3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현실화된 대규모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 공세 역시 중국의 상호의존을 역이용한 미국의 전략(그 후 중국의 대미 수출 중 2,000억 달러 물량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 부과)

- 중국 대미 무역흑자 중 2000억 달러를 줄이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 사항

- 2020년 1월 중국의 타협으로 양국 간 무역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미국의 요구는 상당 부분 관철

- 결국 과거 소련에 대해서는 가지지 못했던 경제 무기를 미국이 지니고 있는 셈

○ 탈동조화는 기술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미국의 대중 기술 봉쇄가 시간이 갈수록 가시화됨

○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 기술봉쇄의 중요한 타겟이 됐던 분야는 기술 이전, 탈취 혹은 보안 등에 가장 민감한 중국의 IT 산업이었고, ZTE(中興通訊, 중흥통신), 푸젠진화((福建晉華 · JHICC), 텐센트, 그리고 화웨이 등이 제재의 대상으로 떠오름

- 2018년 4월 이란과 위법한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중국 2위의 통신업체 ZTE(中興通訊)에 대해 7년 동안 미국기업과의 거래 중지 명령

- 2018년 10월 미국정부는 중국 3대 주력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푸젠진화를 수출입 금지 명단에 등재함으로써 메모리 칩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푸젠진화가 더 이상 수입하지 못하도록 수출 제한 명령 발동

- 2020년 9월 트럼프가 승인한 행정 명령에 따라 미국 기업과 중국 게임 업체 텐센트 간의 거래 전면 금지

○ 2018년 3월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의 중국 IT 기업 제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핵심적인 사안은 역시 최대 업체 화웨이에 대한 압박

- 2003년 미국의 통신장비 업체 시스코, 화웨이에 대해 자사 소프트웨어 복제 혐의로 소송 제기(화웨이 사건의 시작)

- 2020년 9월 15일, 미국의 기술 및 장비를 이용해 미국과 제3국에서 생산된 모든 종류의 반도체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화웨이와 그 계열사에 판매할 수 없다고 미국 정부가 최종 결정(화웨이 숨통 끊기)

- 2020년 9월 25일 미국정부,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업체 SMIC를 블랙리스트에 등재;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가 중국 SMIC와 그 자회사에 특정 기술 장비를 수출하려면 사전에 면허(허락)를 얻어야 한다고 명령

나. 봉쇄정책의 재현

○ 과거 미소 냉전 시기에는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이 미국 전략의 핵심 내용이었음

○ 과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봉쇄정책은 활용되고 있는가?

○ 앞서 소개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역시 대중 경제봉쇄 측면이 있음

-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중국 수입품은 다른 국가의 제품으로 급속히 대체 중

- 낮은 비용 제품을 생산,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LCCs: low-cost countries, 14개국)의 대미 수출품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까지는 연 평균 64% 이상이었지만, 2019년 들어오면서 급격히 줄어들어, 2019년 4분기에는 비율이 56%로 급락[5)]

- “어떠한 경우든 중국에서 저비용 국가로 상품생산이 이전되는 상황은 지난 5년

5) 이하 Kearney Report on China 2020.

동안 천천히 가시화됐지만, 특히 2019년 들어 눈에 띄게 가시화됐는데 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

- "이러한 추세는 향후 반전되지 않을 것이며 지속될 것으로 예견됨"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지적소유권 압박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바, 특히 중국 IT 산업에 대한 미국의 기술 제재는 대중 기술봉쇄라고 볼 수 있음

- 앞서 소개한 ZTE(중흥통신), 푸젠진화(JHICC), 텐센트,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통해 이들 기업의 존립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는데, 미국의 대중 기술봉쇄의 의미와 위력이 잘 드러나는 대목

○ 2018년 7월 발표된 중국 공정정보화부 조사 결과 중국 IT 산업의 취약성이 다음과 같이 드러남

- 중국 30대 기업의 130개 핵심 부품 및 소재를 조사한 결과, 컴퓨터와 중앙처리장치(CPU), 그리고 서버용 CPU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95%를 수입(South China Morning Post, 2018/07/19)

- 중국 반도체 자급율이 10% 내외라는 현실이 밝혀짐

- 중국 기술의 취약성에 비추어 특히 중국 IT 산업에 대한 미국의 기술 제공 금지는 대단히 유효한 기술 봉쇄전략인 셈

○ 최근에는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전해짐

- 반도체는 크게 정보 저장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연산 제어 등을 수행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누어지는데, 상기 공정정보화부 조사는 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대만의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 포스(Trend Force)에 따르면, 메모리 분야 역시 2014년 이후 약 1조 위안(약 150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드러남(한국경제, <중국 메모리 점유율 0%> 2020/11/21)

- 결국 6년 동안의 노력과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 자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셈인데, 상황이 그러하기에 미국의 기술봉쇄가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임

○ 이와는 별개로 외교·군사 차원에서도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전략이 가시

화되기 시작

- 2019년 6월 발표된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통해 미국의 대중 군사전략이 다음과 같이 구체화됨

- “중국은 근접한 미래에 인도-태평양의 지역 패권을 노림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세계 지배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동 지역에서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 전략은 지금은 모든 국가들에게 열려있는 해역 및 공역의 상당 부분을 포함, 중국의 영향권을 설정한 후 다른 국가들의 지역 내 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대규모 파워 경쟁이 재현된 셈이므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견지하기 위해 미국은 강한 동맹관계와 그 밖의 파트너쉽에 기초,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 인도-태평양 사령부 창설: 이미 2018년 5월 중국의 팽창을 경계하여 중국 관할 지역을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했고, 조직 또한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명

-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 보유 해군력 집중 배치

○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 강화

- 2020년 8월 앨릭스 에이자(Alex Azar)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대만 방문, 1979년 미·대만 단교 후 최고위 미국 관료의 방문

- 2020년 9월 미 국무부 키스 클라크(Keith Krach) 경제차관 대만 방문, 양국 단교 후 대만을 방문한 최고위 국무부 인사

- 2019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무려 약 115억 달러 규모의 최신 미국 무기가 대만에 판매됨(공격 무기 포함); 대만 방어에 미국이 적극 나선 셈

-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동안 수용했던 하나의 중국 그리고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을 미국이 의도적으로 허물고 있다는 사실

-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반복 제기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

○ 2020년 8월 미국, 일본, 인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 4개국을 통합한 군사협력기구인 쿼드(Quad)의 출범

-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한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들의 사실상 반(反)중국 군사동맹

- 미국의 대중 군사 포위 전략이 가사화되고 있는 셈

5. 결어

○ 미국의 대중 인식, 특히 중국 공산당 및 공산주의식 팽창주의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은 대중 정책이 이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핵심 동인; 전문가들은 이를 '신냉전' 으로 간주

○ 중국 시진핑 주석도 이념 갈등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피력

○ 즉 국가 갈등의 최고 수준인 이념분쟁으로 미중관계가 대단히 악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의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 현실화는 과거 미소냉전 시절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을 연상시킴

○ 양국의 밀접한 경제적 상호의존, 그리고 중국과 세계경제의 깊은 연계 등이 미중 신냉전의 과거와 다른 특징

○ 미국은 바로 이점을 역으로 활용,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통해 중국경제를 잠식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

○ 물론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중국의 경제적 연계가 대단히 강하여 탈동조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한 완전히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불균형 상호의존(uneven interdependence)이 언제고 무기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 듬

○ 현재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과거 미소 냉전 시에는 없었던 변수이고, 따라서 구소련과 비교 중국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의 불균형 상호의존이 미국에게 강력한 지렛대를 제공한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상호의존이 중국 측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 이념분쟁 요소가 강하게 투사된 신냉전은 논리상 미국의 이데올로기와 중국의 그것 중 하나가 소멸돼야 종식될 수 있음

○ 그러므로 현 미중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양측은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임

○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는 힘들다는 현실에 비추어, 시기의 문제가 남았을 뿐 승부는 이미 정해진 셈이므로 한국도 이런 냉혹한 상황을 고려한 외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